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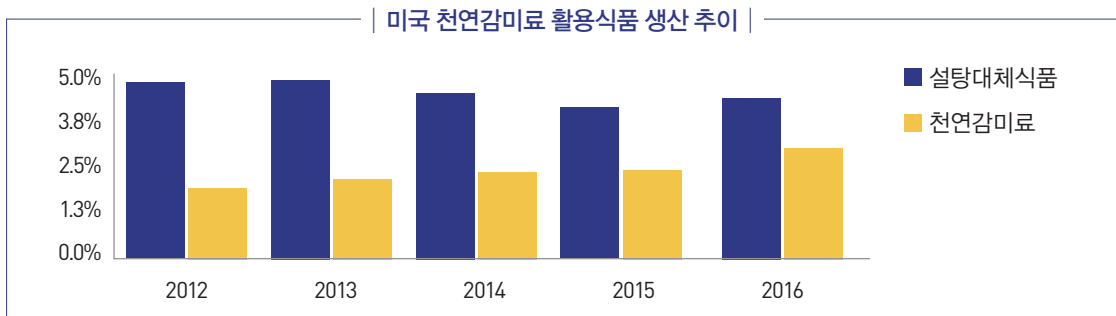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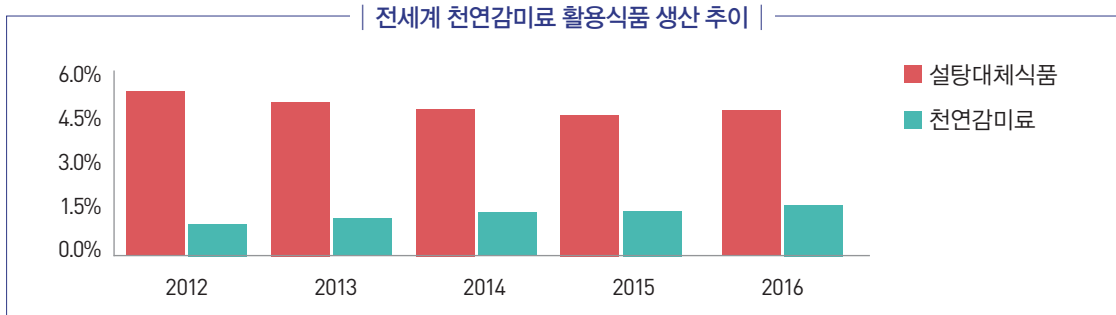


건강한 단맛 찾는 스위트너(Sweetner) 트렌드

뉴욕지사

천연추출물로 만든 설탕대체제에 각광하는 미국소비자

- 글로벌 리서치기관 민텔(Mintel)에서 실시한 설탕, 스위트너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, 미국소비자의 84%는 체중조절과 건강을 위해 설탕섭취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. 하지만 단맛의 유혹을 이기기 힘든 많은 소비자들이, 건강에는 덜 해롭지만 단맛은 즐길 수 있는 설탕대체식품(artificial sweeteners)을 찾고 있다.



* 연도기준은 당해년도 6월부터 익년도 5월까지

천연감미료 3가지

- 스테비아(Stevia) : 저칼로리 스위트너로 남아메리카 원산지의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한다.
- 에리트리트(Erythritol) : 설탕에 비해 약 70% 정도의 단맛을 내며, 체내흡수가 거의 없는 저칼로리 감미료다.
- 자일리톨(Xylitol) : 당 알콜(Sugar alcohols), 폴리올스(Polyols)에 속하며 칼로리는 설탕의 2/3 정도이고,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.

| 미국에서 판매중인 Sweetner 제품들 |

**Health garden의
Real Birch Xylitol**

천연감미료이며 충치예방에
도움되는 자일리톨 함유 감미료

**Splenda의
Packets**

각 포장에 설탕 2티스푼의 단맛을
낸다는 Splenda

**In the Raw의
Stevia**

허브과의 스테비오사이드를 원료로
제조한 대체감미료

**So Sweet의
Stevia**

맛과 신뢰도 면에서 후한 점수를
받고있는 스테비아감미료

**Nowhealth Group의
Eritoritol**

과일 및 발효식품에 함유되어 있는
천연의 당 알콜, 칼로리가 거의 없는
감미료

출처 : www.healthgardenusa.com, www.splenda.com, www.intheraw.com, www.sosweet.in, www.nowfoods.com

천연감미료 수요 확대될 전망

- 천연재료를 사용한 음료들과 건강음료들이 미국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이며, 2012년부터 에리트리톨과 스테비아를 함유한 음료의 신제품 런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. 스테비아주스는 맛, 신용도, 프리미엄 등 인지도 면에서 소비자에게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.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에서 내놓은 신제품일수록 판매율은 더 높게 나타났고,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호응이 뜨겁다.
- 식품업계의 화두는 '건강'이다. 이런 경향은 미국인의 소비패턴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. 인공감미료와 설탕 함유량이 많은 제품들은 점점 더 외면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, 그에 대한 대체제로 당수치와 칼로리 흡수율이 낮은 감미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.
- 앞으로 더욱 다양한 천연감미료가 개발될 것이며, 대형브랜드에서도 이를 활용한 새로운 음료나 스낵류가 잇달아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업체들도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출처 : <https://www.fooddive.com>
<http://www.supermarketnews.com>
<https://sugaralliance.org>